

‘괴물’ 허성태 “입지 않고 오바않는 연기 원없이 쏟아냈다”

조폭 출신 건설사 사장 이창진 역할 완벽 소화해

“러시아어 실제로 전공, 작가가 알고 제안해 준비”

“신하균, 센스 남달라...여진구, 빠르게 커 줘 고마워”

“감독, 작가, 함께 호흡했던 모든 배우 덕분에 준비했던 연기를 원없이 쏟아낼 수 있었다. 재밌게 연기했던 현장이었다.”

최근 호평 속에 종영한 JTBC 금토드라마 ‘괴물’에서 조폭 출신 건설사 대표 이창진을 맡아 눈길을 끈 허성태는 “진심으로 행복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허성태는 최근 뉴시스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창진을 연기하면서 최대한 입지 않으면서 오버스럽지 않게 연기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시청자들이 혼란에 빠질 때쯤 어떻게 진짜 ‘이창진’을 드러내는 것이 재밌고, 흥미진진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그는 ‘괴물’에서 문주시 개발로 인생 역전을 노리는 K건설 사장이자 목적 달성을 위해선 약해도 서슴치않는 ‘괴물’로 등장한다. 반면 서글픈, 능글맞으면서 적당히 코믹스럽고, 전 부인 오지화(김신록)를 향해서는 귀여운 애교까지 더한 일편단심을 보여준다.

이창진은 부인의 러시아 거리에서 배운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인물이다. 약간 어설픈 듯 하지만 어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묻어난다. 이창진은 뒷날도 안 한다. 면전에서 바로 해버린다. 다만 러시아어로 하기 때문에 상대는 잘 알아듣지 못한다. 이러한 설정이 이창진을 더 돋보이게 했다. 때로는 귀엽게, 때로는 당당하게, 또 괴물답게.

허성태는 자신만의 이창진이란 캐릭터가 탄생한 배경을 밝혔다.

그는 “감독과 작가의 사전미팅에서 이야기가 나왔다. 제가 대학에서 러시아어 전공인 것을 작가가 알고 있었고, 제안을 해주셔서 열심히 준비해보겠다고 했다. 한국에서 통·번역하는 러시아 친구가 있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이창진만의 차별점을 만들어낸 노하우가 무엇인지 묻자 “악역 연기를 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경직되지 않고 다양한 표정과 호흡으로 지루하지 않게 하려 노력한다”고 전했다.

허성태는 “이창진은 후반부에 악행이 드러나지만 그전까지는 미워할 수만은 없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라며 “캐릭터마다 다양한 호흡의 범위의 제한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게 감독님과 조절하면서 맞춰 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진은 극에서 등장할 때부터 다리를 절며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 그러다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와 같은 반전을 선사한다.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 물어봤다.

허성태는 “조금 허무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창진이 ‘큰형님’ 대신 칼을 맞게 된 김에 독립하려고 ‘쇼’를 한 것이다. 마지막 회에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길 한다”고 했다.

그러더니 “실질적인 이유는 아마도 긴급 상황 시 무기로 사용할 몽둥이 같은 게 필요했던 것 같다. 다리를 절면 상대는 위협을 느끼지 못할 테니, 더 유리한 상태에서 나쁜 짓을 할 수 있다. 지팡이라는 무기가 있으니 상황은 더 유리하게 될 테니까”라고 말했다.

동료 배우들과의 호흡도 전했다.

이창진의 능글맞은 순애보를 표현 전 부인 오지화역의 김신록에 대해서는 “호흡이 아주 좋았다. 서글서글하고 매력있는 연기 덕에 편하고 흥미롭게 연기할 수 있었다. 저의 말도 안 되는 애교를 잘 받아줬다”고 했다.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 많았던 도해원(김혜연) 의원과 한기환(최진호) 경찰차장을 향해 “정말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그는 김혜연에게는 “이때까지 보아온 여배우 선배 중 따뜻하고 배려 있는 배우 1순위로 감히 뽑고 싶다”고 했고 최진호에게는 “영화 ‘도둑들’에서 한쪽 눈 가리고 나오실 때부터 계속 연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선배가 ‘언젠가 한번은 연기할 줄 알았다’고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말했다.

신하균을 향해서는 “한 번은 꼭 함께하고 싶었던 배우였다. 붙는 신이 없었지만, 이 동식(신하균)이 이창진에게 남상배(전호진)의 죽음을 묻는 장면이 있다. 따로 촬영해서 신하균 선배가 애드립을 한 지 몰랐는데, 방송으로 보고 진짜 너무 많이 웃었다. 센스가 남달랐다”고 전했다.

여진구에 대해서는 “2013년 방송된 tvN ‘감자별’을 통해 알게 됐다. 저는 단역, 여진구 배우는 아역이었을 때”라며 “감자별 이후 괴물 촬영장에서 처음 보게 됐는데 ‘진짜 잘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너무나 빠르게 커 줘 고마울 따름”이라고 했다.

허성태는 ‘괴물’을 마친 한 달 동안 다이어트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시작으로 영화 ‘소년들’과 드라마 ‘괴물’까지 모두 일부러 삶을 지운 상태에서 촬영했다.

그는 “원래 체중이었던 75kg에서 90kg까지 15kg가량 증량을 해서 촬영을 시작했고, 같은



시간 다른 작품들도 촬영했기에 ‘연결’을 생각해서 일 년 동안 큰 몸집으로 살았다”고 했다. “비대한 몸으로 생활해 힘들었어요. 이제 한 달 동안 살을 빼고, 휴식 후에 드라마·영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뉴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美 ‘엘렌쇼’ 첫 출연

“기쁘고 자랑스러워”

보이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가 미국 TV 토크쇼에 처음으로 출연해 현지 시청자들을 만났다.

이들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유명 토크쇼인 ‘엘렌 디제너러스 쇼’에서 미니 3집 ‘미니스드 : 블루 아이’ 수록곡 ‘날씨를 잃어버렸어’ 무대를 펼쳤다.

팬데믹으로 변한 세상을 마주한 10대들의 이야기를 그린 곡으로 학교를 배경으로 한 세트에서 군무를 선보였다.

특히 각자 다른 곳을 향해 손을 뻗어 서로를

그리워하는 모습, 서로 손을 잡고 싶어 하지만 끝내 잡지 못하는 동작들로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사라진 뒤 느껴지는 불안감과 혼란스러움을 표현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비하인드 영상에서 “엘렌쇼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어 너무 기쁘고 영광이다. 이런 좋은 경험을 멤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들은 미니 3집과 일본 앨범인 ‘스틸 드리밍’이 연이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진입하며 저력을 입증했다.

뉴스

오마이걸, 다음달 10일 완전체 컴백

그룹 오마이걸이 완전체 컴백을 확정지었다.

16일 소속사 W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오마이걸은 오는 5월 10일 새 앨범으로 돌아온다.

지난해 4월 발매한 미니 7집 앨범 ‘논스탑’ 이후 약 1년 1개월 만이다.

오마이걸은 지난해 ‘살짝 설렘’과 ‘돌핀’으로 연말 히트를 쳤다.

음원 차트 유희는 물론 음악방송 8관왕을 기록하는 등 대세 행보를 이어갔다.

‘성장형 아이돌’의 대표로 사랑 받아온 이들이 이번 새 앨범으로 어떤 독보적인 콘셉트와 음악 세계를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티빙, ‘언더커버’ 독점 공개...JTBC와 협업 본격화



지진희·김현주·허준호·정만식·이승준·권해효 등 출연

국내 OTT 티빙(TVING)은 오는 23일 방송되는 JTBC 새 드라마 ‘언더커버’를 독점 공개한다.

JTBC 채널을 통한 방송을 제외하고는 국내 모든 플랫폼을 통틀어 티빙에서만 ‘언더커버’를 실시간 시청 및 VOD로 감상할 수 있다.

‘언더커버’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온 남자가 일련의 사건에 휘말리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지진희, 김현주, 허준호, 정만식, 이승준, 권해효 등이 출연한다.

티빙과 JTBC의 협업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지난 1월 지분 투자를 통해 티빙에 합류한 JTBC는 음식 로드 다큐멘터리 ‘백종원의 가게’, JTBC ‘유명가수전의 스피노프인’ ‘유명가수전 히트트랙’ 등의 티빙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했고, 이번에 자사 드라마의 VOD 티빙 독

점 서비스를 결정하며 티빙 콘텐츠 라이브러리 확대에 나서고 있다.

티빙 황혜정 콘텐츠사업국장은 “정준연 PD의 ‘여고추리반’, 나영석 PD의 ‘스프링 캠프’ 등 티빙이 메인 기획·투자 콘텐츠와 극장 동시 공개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인 영화 ‘서복’과 같은 오리지널 콘텐츠 외에도 이번 ‘언더커버’처럼 디지털 플랫폼 가운데 티빙에서만 볼 수 있는 독점 콘텐츠도 빠르게 늘려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티빙은 지난 해 10월 CJ ENM으로부터 분할해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후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와 기술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업 강화를 위해 JTBC, 네이버 등과도 협력에 나서며 올해 약 20여개의 오리지널 콘텐츠와 다양한 독점 서비스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신동엽·수지, 백상예술대상 MC 확정

다음달 13일 JTBC 생방송

신동엽·수지가 백상예술대상 MC로 나선다. 두 사람은 다음 달 경기도 일산에서 열리는 57회 백상예술대상 MC로 확정, 시상식을 이 끝어 나간다.

신동엽은 50회부터 52회까지 3년 연속 MC를 맡은 뒤 한 해 쉬고 다시 4년째 마이크를 잡고 있다. 수지는 52회부터 6년 연속 백상을 책임지게 됐다.

두 사람은 올해까지 5회 호흡을 맞춘다.

뉴스



하하 “무도 재결합? 소중한 말하기 조심스럽다”

만능 엔터테이너 하하가 ‘무한도전’ 재결합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밝혔다.

15일 유튜브 채널 ‘하하 PD HAHA PD’(이하 ‘하하 PD’)에서 공개된 ‘잘 되든 안 되든 시구호: 서푼차이’(이하 ‘서푼차이’) 네 번째 에피소드에서 하하는 “‘무한도전’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그만큼 소중한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됐다. 우리 스스로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된다고 한들 예전의 영광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 박수칠 때 떠났기에 아름다운 추억이 없을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서푼차이’에서 하하는 자신을 서포터로 지목한 유튜브 파워팬을 만났다. 파워팬은 마포구 스타일을 배우고 싶고, 새로운 스타일링에 도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하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파워팬과 친해졌고 두 사람은 친형제 같은 케미로 유쾌한 웃음을 선사했다.